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⑤ 2.⑤ 3.① 4.④ 5.② 6.③ 7.③ 8.④ 9.② 10.②
11.⑤ 12.⑤ 13.⑤ 14.③ 15.① 16.② 17.② 18.③ 19.④ 20.⑤
21.④ 22.① 23.① 24.③ 25.④ 26.① 27.② 28.③ 29.④ 30.①
31.① 32.③ 33.① 34.① 35.③ 36.④ 37.③ 38.⑤ 39.③ 40.④
41.④ 42.⑤ 43.① 44.④ 45.⑤ 46.② 47.② 48.⑤ 49.⑤ 50.②

[1-5] 듣기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제 꿈 이야기 하날 들려 드리겠습니다. 전 꿈속에서 낯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 호기심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인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전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물건을 파느냐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전 무엇을 사야 할까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사랑, 부귀 그리고 지혜하고 건강도 사고 싶습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지금 바로 살 수 있나요?”

그러자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한번 잘 보게나. 여기에서 팔고 있는 것은 무르익은 과일이 아니라 씨앗이라네.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할 걸세.”

1. 추론적 사고(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 추리)

정답해설 : 화자는 꿈속에서 행복을 파는 가게로 가게 된다.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노인은 사랑, 부귀, 지혜, 건강을 사고 싶다는 화자에게 “여기에서 팔고 있는 것은 무르익은 과일이 아니라 씨앗이라네.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할 걸세”라고 말해 준다. 여기서 ‘무르익은 과일, 즉 좋은 열매’는 화자가 소망하는 것들(사랑, 부귀, 지혜, 건강)을 의미하는 데, 그것을 얻기 위해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은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답] ⑤

2.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이번 동아리 음악 감상회는 드뷔시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드뷔시의 음악은 아무리 들어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 정말 드뷔시의 음악은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체계적인 음악을 선호하던 당시 경향에 비한다면 뭐랄까, 실체가 없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드뷔시도 처음에는 그 당시 음악의 흐름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뭐,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고나 할까.

남자: 그래도 맺고 끊는 게 있어야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의 음악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랄까, 좀 몽롱하다고나 할까.

여자: 맞아요. 드뷔시 음악의 성격을 제대로 보셨네요. 드뷔시는 화성을 색채로 보았어요. 음악적 분위기로 만들어 내는 빛이랄까. 당시 독일의 음악가들은 화성을 철학이나 한편의 희곡처럼 생각했대요. 선율을 고조시키고 이완시켜 즐거리를 부여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드뷔시는 이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선율을 보여 주고 싶었나 봐요.

남자: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음악에서 기승전결 같은 구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자: 음악이 꼭 주어, 서술어로 이어지는 문장이 될 필요는 없겠지요. 전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담아내려는 그의 시도가 오히려 존경스럽더라고요. 한번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들어 보세요. 짧은 곡이지만 드뷔시 음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곡가 블레즈가 현대 음악은 이 곡으로 깨어났다고 한 바로 그 곡이죠.

2.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남자와 여자는 동아리 음악 감상회의 주제인 드뷔시의 음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자의 말에 따르면 드뷔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찾으려고 했고, ‘전통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자는 드뷔시의 음악이 맺고 끊는 게 없다고 했고, 여자는 그것이 드뷔시 음악의 성격이라면서 화성을 철학이나 희곡처럼 생각했던 당시 독일 음악가들과 달리 드뷔시는 이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선율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에서 기승전결 같은 구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남자의 말에 대해 여자는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담아내려는 드뷔시의 시도’가 존경스럽다고 말하며 현대 음악은 드뷔시의 곡으로 깨어났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상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드뷔시 음악의 특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담아내려는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낸 표제와 부제는 ⑤번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악보로 쓴 회곡’, ‘선율의 고조와 이완이 줄거리가 된’ 등의 표현은 모두 드뷔시가 극복하려 했던 당시 독일 음악가들의 경향에 해당된다. ② ‘소리로 빛은 색채의 향연’은 드뷔시에 해당되지만, ‘화성을 철학으로 승화시킨 음악’은 드뷔시보다는 당시 독일 음악가들에 해당된다. ③ ‘분명한 맺고 끊음의 미학’은 드뷔시 음악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 ④ 드뷔시는 ‘전통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했으므로 거리가 멀다.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밤에도 햇빛이 하늘에 비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대일조라는 천문 현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일조란 밤하늘에 희미한 빛이 타원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빛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두운 밤일 때, 지구 반대편 저쪽을 태양이 비추고 있겠죠? 그 햇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에 비치는 게 바로 대일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가능할까요?

대일조 현상의 비밀을 밝혀 준 건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입니다. 이 우주 탐사선은 태양계의 행성들 사이의 먼지가 대일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 먼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햇빛을 산란하는 거죠. 산란이란, 빛이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현상인 건 알고 계시죠? 산란되는 빛 중에서도 빛의 진행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이 가장 강하답니다. 바로 이 빛들이 모여 대일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일조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는 장소와 겹치기 때문에 보기 어렵고, 겨울에는 대일조보다 더 밝은 은하수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일조는 봄과 가을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일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가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일조를 보기 위해 몽골의 초원과 같은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은은히 빛나는 자연 그대로의 밤하늘을 잘 볼 수 없다는 게 아쉽기만 하네요.

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강연에서는 ‘대일조’라는 천문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강연 내용에 따르면, 대일조는 ‘밤하늘에 희미한 빛이 타원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이 현상의 비밀을 밝힌 것은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임을 알 수 있다. 우주 탐사선이 밝혀낸 대일조의 원인은 태양계 행성들 사이의 먼지인데, 이 먼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햇빛을 산란(빛이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현상)하고, 이렇게 산란되는 빛들이

모여 대일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강연 내용 중에 대일조는 봄과 가을에만 볼 수 있고 여름과 겨울엔 볼 수 없는데, 여름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는 장소와 겹치기 때문이고 겨울에는 대일조보다 은하수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우주 탐사선이 밝혀낸 것은 대일조 현상 자체가 아니라 대일조 현상의 원인이므로, 대일조 현상 자체가 우주 탐사선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①

4~5.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정책을 담당하시는 박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김 박사(여): 네,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단 폐수 방류 사건 이후에 17년간 네 번에 걸친 종합 대책이 마련됐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돗물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수돗물 사업이 민영화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여):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도 수돗물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기술 수준도 세계적이고요. 그리고 효율성 문제는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 가동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고, 누수율도 15%나 된다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 보수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상태로 민영화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돗물 가격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물 산업 강국이라는 프랑스도 민영화 이후에 물 값이 150%나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회자(남): 박 과장님, 김 박사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과장(남): 민영화할 경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와 잘 협조하면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수돗물 사업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다면, 수질도 개선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시설 가동률과 누수율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4. 추론적 사고(이전에 말한 내용의 추론)

정답해설 : 사회자는 지금까지 수돗물 정책 담당자의 말을 들었고 이번에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 단체의 대표인 김 박사는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의 핵심이 ‘수돗물 사업의 민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자가 수돗물 사업이 민영화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분도 많을 것이라고 하자, 김 박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효율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면서 수돗물 사업의 민영화가 물 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책 담당자가 방금 전에 효율성 문제를 근거로 수돗물 사업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책 담당자는 민영화할 경우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사회자의 두 번째 말로 볼 때 정책 담당자가 ‘전문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담당자가 주장한 내용은 ‘기술 교육 강화’가 아니라 ‘수돗물 사업의 민영화’이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③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민영화할 필요가 없는 셈이므로 이는 정책 담당자의 의견과 상반된다. ⑤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므로 정책 담당자가 이전에 말했을 내용으로 볼 수 없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여성 토론자(시민 단체 대표인 김 박사)는 시설 가동률 50%, 누수율 15%, 민영화 이후 물 값이 150% 인상된 프랑스의 사례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인 수돗물 정책 담당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여성 토론자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③ 여성 토론자가 논박하면서 제시한 근거 중에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 ④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여성 토론자의 말 중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여성 토론자의 말 중에서 상대방의 반론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학습’에 관한 글을 쓰려 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등산 배낭을 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과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에서의 유사성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 생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유추의 사고가 작용한다. ③과 같이 ‘여러 학습 방법을 비교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배낭 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다’는 내용이 제시

되었어야 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는 등산 배낭을 꾸릴 때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꾸리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응된다. ② 이는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가고 싶더라도 체중의 1/3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에 대응된다. ④ 배낭의 무게가 등 전체에 골고루 분산 되도록 가벼운 것은 아래에, 무거운 물건은 위에 넣어 체감 하중을 줄인다는 내용에 대응된다. ⑤ 여행 목적지와 일정을 고려하여 배낭을 꾸린다는 내용에 대응된다.

7. 추론적 사고(계획에 맞게 내용 선정하기)

정답해설 : 주제는 체계적인 어린이 건강 증진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운 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생성하고 있다. 그런데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 ‘어린이 보육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했다. 보육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은 주제를 표현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가 수집해야 할 자료는 ‘어린이 건강 증진 방안’과 관련된 자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상 독자에게 필요성을 환기시키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② 국내·외의 자료나 제도의 현황 조사를 통한 비교·대조는 우리에게 어린이 건강 증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④ 문제의 시급성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⑤ 구체적인 건강 증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다.

8. 추론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명승고적에 대한 글을 써야 한다. 첫째가 비유적 표현, 둘째가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 셋째가 완곡한 표현이다. 이 모두를 충족한 것은 바로 ④번이다. ‘○○산이 고장의 수호신’이라는 점에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고, ‘오랑캐와 싸웠던 의병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내용에서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산의 정상에서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기개를 일러 주지 않겠느냐’는 내용에서 완곡한 권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이 산을 찾아달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천 년 전 살았던 옛사람들이 묻힌 곳’에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조건만 지키고 있다. ② ‘물안개가 전설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추억을 만들어 보라는 내용에서 완곡한 권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망부석인 양’에서 비유적 표현을, 오백 년 전 이국으로 떠난 이들의 피붙이들이 만든 정자에서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이 나타나 있다. ⑤ ‘술을 치맛자락 삼아’에서 비유적 표현을, 앞마당에서 술잎 향기를 즐겨 보라는 말에서 완곡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9. 비판적 사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활용)

정답해설 : 개요의 초고를 작성한 후 새로운 글감 세 가지를 접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글감을 모두 활용하여 개요를 보완한다고 했으므로 글감을 분석하여 개요의 어디에 보완하면 좋겠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글감 ㄱ은 독일의 사례로 정부 기관이 환경 영향 평가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글감 ㄴ은 우리나라의 사례로서 개발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정부 기관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ㄱ과 ㄴ의 사례는 같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그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ㄷ의 글감에서 우리나라의 개발 사업자가 왜곡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추가된 세 개의 글감은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II-2-가. 제도상의 문제’에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서 개요를 보완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성과라 할 수 없다. ③ 추가된 글감의 자료는 감독 소홀이라기보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추가된 글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환경 오염 처리 시설의 언급은 없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

정답해설 : ㉠의 문장은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장 구조로 볼 때,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로 이어져 있다. 즉, 개발로 인해라는 어구는 양쪽에 다 걸리는 것이다. 결국 ‘개발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로 되기에 이는 피동의 형태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개발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따라’로 고친다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답] ②

11. 어휘·어법 (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두 단어로 표현된 것을 접사를 사용하거나 합성에 의해 같은 의미의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세계 밀었다’는 ‘밀다’에 ‘-치-’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밀쳤다’로, ‘몹시 불었다’는 ‘불다’를 ‘-디-’라는 연결어미를 이용해 합성어로 만들어 ‘불디불었다’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의미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⑤에서 ‘심하게 싸웠다’는 두 단어를 ‘싸움질했다’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의미에 변화가 생겼다. 즉, ‘-질’이라는 접미사는 어떤 행동을 저급하게 표현하는 의미를 덧붙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심하게 싸웠다’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크다’에 ‘-다랗-’이라는 접미사가 결합되었다. ② ‘찾았다’에 ‘되-’라는 접두사가 붙었다. ③ ‘들었다’에 ‘엮-’이라는 접두사가 붙었다. ④ ‘디뎠다’에 ‘헛-’이라는 접두사가 붙었다.

12. 어휘·어법 (자료를 통한 어법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맞춤법 규정 19항과 그 해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어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맞춤법 규정의 붙임에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⑤의 ‘마개’를 분석해 보면 ‘막+애⇒마개’가 된 것이기에 어간에 ‘애’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마개’는 원래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1항 [붙임]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며, 의미 또한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먹이’로 적는 것이다. ② 장신구로서의 ‘목걸이’ 또한 ‘-이’가 결합되었고,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③ ‘마중’에서 ‘-웅’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이면서 동시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이 결합되어 품사가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④ ‘같이’는 ‘-이’나 ‘-음’이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며 어간의 뜻도 유지하고 있기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13-16] 현대시

(가) 김광균, 와사등

작품해설 : 이 시는 도시를 배경으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잘 활용한 작가답게 이 작품에서도 감각적인 표현과 참신한 비유가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작품의 중심 소재가 되고 있는 와사등은 도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으며,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절망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 도시적 삶에서 느끼는 고독과 비애

(나) 김수영, 사령(死靈)

작품해설 : 이 시는 화자인 ‘나’와 ‘벗’의 대화를 기본 설정으로 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까지도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자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활자요,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을 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 시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비겁함과 소심함을 자책하는 한 시대의 지성인의 양심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자성(自省)

(다)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작품해설 : 이 작품에는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세속적인 욕구와 자연에서의 은거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정하지도 못한 채 갈등하고 있다. 작품 전체가 현실 세계로부터 일탈(逸脫)하여 자연 속으로 침잠(沈潛)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노래는 18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졌으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후기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자연이라는 공간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여 작가의 실존적 모습을 제시한 작품으로 문학사적 의미를 가진다.

[주제] 세속적 삶의 욕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

13.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삶의 비애에 잠겨 있다. 낮설은 거리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모르고 있다. 고뇌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화자가 고뇌에 차 있음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나)의 화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고개 숙이고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고요한 현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행동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는 공명의 길과 강호에서 자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 갈등하고 있다. [답] ⑤

[오답파하기] ① (가)에서 화자의 고뇌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나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 또한 행동해야 함을 잘 알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기에 도피하고 싶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가)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나 화자의 인식도 엿볼 수 없다. (다)에서 화자는 마지막 수까지 자신의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나)에서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잘 드러나 있지만, 화자는 이에 대해 대결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내면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침묵만 하고 있기에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냐며 반성하는 것이다. ④ (나)에서 화자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으나 지난 십 년을 허둥대며 보낸 것 같아 이러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14.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키는 수미상관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끝 연은 첫 연 이후 전개된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 1연에서 화자는 와사등 아래에서 방향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자의 상황은 2연의 도시적 풍경에 대한 어두운 비유와, 3연에서 낮설은 거리에서의 아우성

소리를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 4연에서는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다는 인식에 이어 마지막 연에 이르고 있다. 결국, 마지막 연에서의 반복은 1연에 제시된 화자의 정서가 그만큼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보며 화자는 자신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자신에 대한 자책, 고요한 현실에 대한 부정,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거쳐 다시 1연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의 자기반성의 정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활자를 의인화시켜 화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활자의 속성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15. 비판적 사고(시구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는 긴 여름해가 훌쩍 저 버리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새가 날개를 접는 듯이 표현한 것이다. 날개가 표현되기는 하지만 날개를 접는다는 것에서 보듯이 이는 상승의 이미지가 아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간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새가 날개를 접는 것에 비유한 것은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는 밤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화자의 슬픔과 고뇌는 심화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 충효를 이루지 못할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에서 ‘나래를 접고’와 ㉣에서 ‘물 흐르듯’에서 비유가 보인다. ⑤ 날개를 접는 것이나 물이 흐르는 것이나 모두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16.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설명한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다. ㉠의 ‘늘어선’은 건물이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화자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가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③ 도시적 문명에 대한 화자의 거부 반응이 드러난다. ④ 도시에서 느끼는 화자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 ⑤ 와사등의 차가운 느낌은 화자가 도시 문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17.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정보에 의하면 작가가 서강에서 심신의 안정을 누린 후에 (나)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가는 심신의 안정을 찾았지만 생활에 대한 긍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가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하는데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답] ②

1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연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연시조의 각 연들은 일관된 체계 아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 연들은 내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의 제1수에서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충효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충효를 추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시간만 흘러가고 이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제3수에서는 충효를 못 이루어도 자연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임천’이란 바로 자연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고 했다. 제2수에서 추구하는 충효의 길과 제3수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제4수에서는 충효의 길(제2수)과 자연 추구의 길(제3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5수에서는 표현을 달리하며 제4수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답] ③

[19-22] 기술, ‘촉매 설계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마법의 돌이라 불리는 촉매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위해 촉매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귀 경로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체계인 촉매 설계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촉매의 개념을 설명하고 촉매 설계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단계를 과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촉매 개발의 필요성과 촉매 설계 방법의 구체적 과정

19. 사실적 사고(작품의 세부적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위해 촉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촉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설계를 통한 촉매 개발이라 할 수 있기에 ④의 진술은 맞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촉매 설계 방법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한 후 진행하다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촉매 조합을 선정하는 단계로 돌아간다고 했다. 즉, 촉매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②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촉매 개발 과정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요행히 촉매를 발견하는 식이었기에 촉매의 개발 완료 시점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③ 전통적인 촉매 개발 과정이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시행착오의 반

복을 통해 촉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발견’이란 시각적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⑤ 촉매 설계 방법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별도의 항목이지 하나가 해결된다고 다른 것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사례의 제시)

정답해설 : ㉠은 회귀 경로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 과정 내에서 통제하는 체계라 했다. 여기에서는 회귀 경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회귀 경로는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⑤에서 철수가 수영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자세로 회귀하여 코치의 조언에 따라 자세를 고쳐 기록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록이 정체된 후 던하는 방법으로 회귀하여 잘못된 방법을 고쳐 기록을 더욱 향상시켰다고 했으므로 ㉡의 방법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비록 세 번 만에 비밀 번호를 찾았지만, 이는 시행착오 끝에 촉매를 발견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가까운 것이다. ㉡ 같은 행동에서 다른 결과를 얻고 있다. ㉢ 우연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 ㉣ 같은 행동과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21.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촉매 설계법에 따라 촉매를 개발한 사례라 했다. 촉매 설계법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기>에서 조업 온도 350도에서 촉매 1킬로그램이 시간당 400리터의 염화수소를 처리하고 전환율이 7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두 개의 반응식으로 구성된 반응 경로 모델을 설정하고, 촉매 조합인 ‘크롬 조합-1’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니 염화수소의 전환율이 65%였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회귀를 해야 한다. 이것은 2문단의 중간 부분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시 촉매 조합을 선정하는 단계로 돌아가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는 새로운 촉매 조합의 방법을 선정하여 실험을 새로이 수행해야 한다. [답] ㉣

[오답피하기] ㉠ 이는 실험이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 설정된 경로 모델대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회귀하는 방법이다. ㉡, ㉢ 첫째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22. 어휘·어법(유의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돕다’의 다양한 유의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수재 의견금을 내서 수재민을 도왔다.’에서의 ‘돕다’는 ‘빈민, 이재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다’의 의미를 지닌 ‘구휼(救恤)’이 적절하다. ‘구명하다’는 ‘목숨을 구하다’

는 의미이다. [답] ①

[23-26] 인문, ‘태조실록’

지문해설 : 이 글은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당시 사관의 역사 기록을 보고자 하는 태조의 명령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신하의 견해를 담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사관의 역사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역사 기록의 왜곡을 초래했던 당 태종의 잘못된 선례를 들어 임금의 역사 기록 열람 명령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금께서 역사를 열람하고자 했다가 신하들의 반대를 수용하여 그 명령을 거두었던 지난 행위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며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한 군주’라는 태조 임금의 특별한 지위를 부각시켜 태조를 따라 후세 임금들이 대대로 역사 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사관들이 사실대로 역사를 기록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임금을 설득하고 있다.

[주제] 임금이 당대 사관의 역사 기록을 열람하면 안 되는 이유

23.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에서 당 태종의 고사를 든 것은 태조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신하)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당 태종의 고사를 들어 임금이 당대의 사관(史官)의 기록을 보고자 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 중 ㉠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셋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는 셋째 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추론적 사고(설득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임금이 역사 기록을 볼 경우 사관이 역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후대 임금도 따라 할 것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해 명령을 철회하도록 결단할 것을 임금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당 태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잘못된 선례를 들어 임금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임금이 역사를 열람하고자 했다가 신하들의 반대를 수용하여 그 명령을 거두었던 지난 행위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며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업한 군주’라는 상대방의 특별한 지위를 부각시켜 사안의 중대성을 환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상기시켜 그 흐름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답] ③

25. 추론적 사고(적절한 반론 추리)

정답해설 : 임금이 역사 기록을 보려는 이유에 대해 글쓴이가 추정한 것이 ㉠일 것

우, 글쓴이는 임금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기록을 제시함으로써 임금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ㄹ’이다. 글쓴이가 추정한 이유가 ㉠일 경우, 글쓴이는 사관의 기록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임금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ㄴ’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보기>의 ‘ㄱ’은 이 글이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추정한 것 중 어느 항목과도 관련이 없다. ‘ㄷ’은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추정한 이유 중 ‘미진하게 기록되었는지 조사해 빠짐없이 쓰도록 하려는 것입니까?’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26. 어휘·어법(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태종에게 미치지도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라는 문맥으로 볼 때, 이 부분에서 ㉠은 ‘일정한 기준 혹은 수준에 도달하다’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에서도 ‘미치지’라는 말이 ‘어머니의 숨씨’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미쳤다’는 자동사로서 ‘어떤 대상에게 힘이나 작용이 가 닿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③ ‘미치지’는 자동사로서 ‘말이나 생각이 어떤 대상에까지 이른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④ ‘미치는’은 타동사로서 ‘(영향을) 끼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⑤ ‘미친다’는 자동사로서 ‘어떤 대상에게 힘이나 작용이 가 닿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27-30] 고전소설, 김만중, ‘사씨남정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집안 내의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가정 소설이면서, 당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장 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풍간(諷諫) 소설이다. 처에 해당하는 사씨 부인을 선한 인물형으로, 첩에 해당하는 교씨를 악한 인물형으로 설정하여 선한 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한림의 고모인 두씨 부인이 유 한림과 사씨 부인을 만나 우려를 표시하는 대목과 유 한림이 교씨의 말을 듣고 사씨 부인을 내쫓기로 결심하는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조카 부부의 앞날에 대한 두씨 부인의 염려와 사씨 부인을 내쫓기로 한 유 한림의 결심

27.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작품의 내용은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서술자는 사건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내면 심리는 최소한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되도록 하였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설보다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그 자체

가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작중 인물의 대화가 지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④ 인물의 회상 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이 역전되는 대목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⑤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발견되고 있다.

28.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사씨가 베치마를 입고 보기에다 처참한 것은 사실이나, ㉠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낡고 해진 사씨의 옷이 아니라, 의복(의 무게)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져 있는 사씨의 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유 한림이 베푸는 전별 잔치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 두 부인이 언짢은 표정을 짓는 것은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음을 짐작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사씨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유 한림이 사씨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살아서 두 부인을 뵙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한으로 여겼다는 것은 사씨가 자신이 머지않아 죽을 처지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사씨 역시 이 상황을 ‘잘못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무엇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책임을 결국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29. 추론적 사고(생략된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에 이어지는 사씨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은 사씨의 잘못된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씨는 자신이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교씨를 첩으로 들이는 과정에서 사씨가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교씨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주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④에서는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교씨의 사람됨을 잘 판단하라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말과 행동의 일치를 언급하며 이행할 수 있는 발언만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는 조언이다. 그러나 두씨 부인이 염려하는 것은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사씨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의 위험성이다. ② 교씨를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내용이므로, 교씨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두 부인이 했을 충고로 보기 어렵다. ③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므로, 교씨의 사람의 됨됨이에 비관적인 두 부인이 했을 충고로 보기 어렵다. ⑤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교씨의 사람 됨됨이를 문제 삼았을 두 부인의 충고로 적절하지 않다.

30. 추론적 사고(작중 인물의 행동에 대한 비판)

정답해설 :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사씨가 쫓겨나게 된 것은 교씨의 흥계 때문이며, ⑥의 장면도 교씨가 사씨를 모함한 직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⑥에서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교씨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나 의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씨가 그 자리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유 한림의 마음에 들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씨가 흥계를 꾸미고, 유 한림에게 사씨를 모함한 것이 모두 ‘그 자리’(부인의 지위)를 노리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씨의 속마음과 외적인 언행이 상반되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표현은 표리부동(表裏不同)인데, 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를 의미한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 교씨는 오히려 속마음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으며, 속마음을 경솔하게 노출하고 있지 않다.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교씨가 유 한림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 다른 짐승들에게 위세를 부리는 상황과는 같지 않다.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어림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유 한림에게 교씨가 눈물로 거짓 하소연하는 대목이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비판하기 어렵다.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한다는 말이다. 집안의 가부장인 유 한림이 교씨에게 감탄고토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31-33] 언어, ‘개구도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이용하여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눈 다음,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매겨나가는 것이다. 이런 소쉬르의 방법론을 국어 음절에 적용시켜 보면, 국어의 음절은 모음이 핵이 되며,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모음과 자음의 개구도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구조

31. 사실적 사고(세부적 사실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은 ‘입의 벌림 정도’ 즉 모음과 자음의 ‘개구도(開口度)’를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 0도, 마찰음과 파찰음 1도, 비음 2도, 유음 3도, 고모음 4도, 중모음 5도, 저모음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해 나가는 방법으

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변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붙여 나가면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되는데, 이를 통해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 보면 ‘끝말잇기 게임’이나 시에서 운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음절 초에는 ‘ㅇ[ŋ]’이,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⑤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영어에서 1음절인 단어가 국어에서는 3음절이 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3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되는데,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다. 이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모음보다 개구도가 작은 자음이 하나씩 올 수 있다. 이러한 음절은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으로, 국어를 발음하는 최소 단위가 된다. [답] ③

33. 추론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한 부등호 배열을 보고 음절의 모양을 추리해 보는 문제이다. 부등호 배열이 ‘<><>>’라고 했으므로, 두 부등호 사이의 음절 경계를 보아 2음절의 단어임을 알 수 있고, 음절의 구조는 ‘자음+모음’인 음절과 ‘자음+모음+자음’인 음절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의 ‘가족’은 ‘개구도 0 6 1 5 0’으로 부등호로 배열하면 ‘<><>>’의 구조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④ 두 번째 음절이 ‘자음+모음’이다. ③ ‘<>><>>’의 구조이다. ⑤ 첫 번째 음절 ‘우’는 ‘자음+모음’의 구조가 아니라 ‘모음’의 구조이다.

[34-36] 과학, ‘피의 순환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우리 몸 안의 혈액 순환에 관한 이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즉 하비가 주장한 피의 순환에 관한 이론을 제기했고, 새로운 현미경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세혈관을 발견하게 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이 정립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피의 이동에 대한 과거의 주장들이 있었고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의 순환 이론’의 의의를 살펴보는 글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어도 끈기있게 유지되던 갈레노스의 이론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험을 근거로 제기된 하비의 주장에 의해 그 이론의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피의 순환 이론’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비의 구체적인 실험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고, 여기에 현미경의 발달까지 겹쳐지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 피의 순환 이론의 정립 및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34. 사실적 사고(중심 대상과의 관련성 이해)

정답해설 : ‘피의 순환 이론’은 하비의 주장에 모세혈관의 발견까지 겹쳐지면서 완전히 정립된 이론이다. 이는 오랫동안 아성을 지켜오던 의학적 정설을 뒤집으며 새로운 생리학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즉 ‘피의 순환 이론’이 성립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현실에 수용되면서 생리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한 셈이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순서를 고려해 볼 때, ①은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에 이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폐정맥이 공기의 통로가 아니라 피의 통로라는 베살리우스 발견과 부합하며 ‘피의 순환 이론’이 성립되었다. ③ 하비는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 새로운 현미경이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⑤ 하비는 자신의 혈관을 직접 묶으며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피의 순환 이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5. 추론적 사고(구체적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하비가 주장한 피의 순환 경로는 그의 실험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비는 자신의 팔목을 직접 묶어 피의 흐름에 변화를 줌으로써 정맥과 동맥의 기능 및 거기를 통과하는 피의 흐름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실험은 기존의 이론을 뒤엎고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게 될 만큼 근거가 확실한 구체적인 실험으로서의 좋은 예가 된다. 하비는 동맥과 정맥을 압박하다가 동맥을 압박하던 끈을 먼저 풀어서 피가 통하게 하고 다시 정맥을 압박하던 끈을 풀어 부풀어 오른 정맥을 가라앉힘으로써 동맥에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하비가 끈을 묶어 압박했던 지점은 각 기관(손)을 중심으로 할 때, 그 전과 그 이후이므로 ㉠과 ㉡이 된다. [답] ③

36. 추론적 사고(관점에 따른 사례의 분석)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이 어떻게 위기를 맞고 어떻게 붕괴되며, 그 자리에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지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정상과학이 새로운 이론에 밀려 위기를 겪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이론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과학 혁명’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에 제시된 과학혁명 성립의 과정을 이해한 후, 여기에 본문의 내용들을 적용시켜

보는 문제 유형인 셈이다. 그러나 베살리우스의 ‘폐순환의 발견’은 갈레노스 추종자들에게도 확증된 이론으로, 본문에 의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갈레노스의 추종자들의 의견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 셈이 된다. 그래서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한 것이지 경험적으로 충분히 확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이므로 이는 기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갈레노스의 생리학은 그 당시로서는 확신되고 있었던 이론들이었기 때문에 정상과학이다. ③ 폐정맥이 공기의 통로가 아니라 혈액의 통로라고 밝혀진 것은 이전의 갈레노스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므로 ‘변칙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은 갈레노스의 이론을 밀어내고 수립된 새로운 이론이므로 ‘과학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37-39] 희곡, 천승세, ‘만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성실하고 순박하지만 ‘만선’에 대한 집착을 지니고 있는 어부 곶치를 주인공으로 하여 집착으로 인해 빚어지는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어부라면 누구나 고기를 가득 잡고 돌아오는 꿈을 지니고 있지만, 폭풍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만선에만 집착하는 곶치의 태도는 결국 자식들의 죽음과 아내의 실성을 초래하고 만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부지런함을 잃지 않고 생계를 위해 힘쓰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만선에 집착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비극적으로 몰고 갈 뿐이다. 제시된 부분은 배가 없어 늘 임제순에게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가난한 곶치가 임제순에게 배를 거절당하는 장면이다.

[주제] 만선에 대한 집착이 부르는 삶의 비극

37. 사실적 사고(작품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본문은 고기를 잡았어도 모두 빗으로 뺏겨버린 연철과 이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가난으로 인한 삶의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맥이 빠진 연철이나 연철이의 상황을 알고 놀라는 인물들의 반응들은 모두 간결하게 처리되어 장면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언어유희’가 사용된 부분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풀이 죽은 연철이나 연철이가 빗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놀람의 반응은 모두 간결한 대사로 처리되어 있어 속도감을 준다. ② 인물들은 모두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어 독자들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④ 그물, 부서 떼, 배 등을 통해 인물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접하고 있는 공간이 바닷가임을 알 수 있다. ⑤ 지시문의 사용이 매우 빈번한 편으로, 이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해준다.

38. 추론적 사고(인물의 역할 이해)

정답해설 : 장면 속에서 연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유형이다. 장면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에 <보기>에 제시된 연철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철의 말과 행동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기>의 ㉠ ~ ㉣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연철은 임제순이 나타나 ‘배를 묶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 성삼, 도삼과 함께 “배를 묶다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철은 잡은 고기를 처분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게 된다. ② 연철의 첫 대사 “놀러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는 기대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다. ③ 연철은 ‘다 뺏겼다’, ‘빛에 잡혔다’, ‘그리고도 이 만원의 빛이 남았다’ 등의 정보를 분할하여 제공하고 있다. ④ 연철은 ‘쉬잇’하는 소리로 사립문쪽에 임제순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39. 추론적 사고(인물의 행동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설명을 통해 제시된 ㉠ ~ ㉣에 나타난 배우의 움직임의 접촉과 회피의 욕망으로 분류한 후, 각 움직임에 들어 있는 의도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다. ㉣은 연철이 하는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곰치가 연철에게 다가가며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상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연철이 하는 말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연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② 연철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착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곰치의 불안하고 애절한 마음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행동이다. ⑤ 곰치의 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40-43] 예술, ‘루뱅 보쟁의 정물화에 나타난 미학적 특징 및 의미’

지문해설 : 이 글은 ‘루뱅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이라는 작품을 통해 17세기 정물화에 드러난 미학적 속성 및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루뱅 보쟁’의 그림에는 꽃병, 거울, 악기, 지갑, 트럼프 카드 등의 사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물들이 갖는 전통적 의미인 도상적 의미를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한 다음, 같은 주제를 그린 동시대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감각적인 악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림의 내재적 의미를 발견해 내고 있다.

[주제] ‘루뱅 보쟁’의 정물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학적 특징 및 그 의미

40. 사실적 사고(글의 화제 파악)

정답해설 : 1단락에 보면 정물화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7세기에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역사화나 종교화와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들이 화가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이 갖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정물화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④의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보쟁’의 예술적 생애라든가, ‘보쟁’ 작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비평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답] ④

41. 추론적 사고(핵심 관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17세기 정물화를 감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한 <보기>를, ‘보쟁’의 정물화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보기>의 관점은 우선 그림 속에 그려진 사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사물들의 의미를 도상적 전통과 관례를 통해 해석한다. ㉠과 ㉡은 바로 이 두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그 다음 단계인 그림의 내재적 의미인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해석해 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17세기 정물화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그렸지만 그 안에 담긴 미학적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④

42.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설명하고 있는 빛의 효과와 유사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는 빛의 섬세한 처리를 통해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답지 중에서 촉각과 시각적 효과에 관련된 사례를 찾으려면 된다. ㉢에 보면 ‘따스한 감촉’과 ‘다양한 색채, 번쩍이는 장식물’ 등, 촉각과 시각을 살린 빛의 효과가 드러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빛과 어둠의 극단적 대비가 드러나 있다. ㉡ 빛의 추상적 표현에 관한 것이다. ㉢ 빛의 동심원 형태, 즉 반복적 효과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기독교적 경건함에 관한 것이다.

43. 어휘 · 어법(의성어, 의태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물랑물랑’은 ‘여기저기가 야들야들하고 보드랍고 조금 무른 듯한 느낌’을 의미하는 의태어로 촉각과 관련이 있다. ‘물썸물썸’은 ‘코를 푹 찌르도록 심한 냄새가 자꾸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후각과 연관이 된다. ‘사각사각’은 ‘벼나 보리 따위를 벨 때, 또는 눈이 내리거나 눈을 밟을 때, 사과 따위를 씹을 때’ 나는 의성어이므로 ‘청각’과 연관이 된다. ‘쌔근쌔근’은 ‘숨쉬는 소리’이므로 ‘청각’과, ‘파룻파룻’은 ‘파르스름한 모양’이므로 ‘시각’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답지 중에서 미각과 연관이 있는 어휘는 없다. [답] ㉠

[44-46] 사회, ‘공공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지문해설 : 이 글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일반적 개념으로써 할인율과 사회적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사용되는 요소들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주장의 문제점으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성격이 같을 수 있는가, 단기적이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의 논리가 장기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점을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주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4.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어는 사회적 할인율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사회적 할인율이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사적 부문에 적용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수준에 대해 언급한 ④가 글쓴이의 핵심적 질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셋째 문단에 언급되고 있지만 보조적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② 글쓴이는 미래 세대의 몫을 공적 성격과 관련짓고 있다. ③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자는 내용만 언급될 뿐 영향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글쓴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영역을 엄격히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은 바로 앞에 제시된 문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생하기 어려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의미를 추론하여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에는 ‘실제로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 않다’는 정보와 ‘정부는 공공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보를 연결하여 이해하면, 그 전제로 적절한 것은 ‘정부는 낮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공공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가 될 것이다.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공공 부문의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정보는 이 글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이 글로부터 추론할 수 없다. ④ 공공 부문에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제한 조치의 필요성에까지 연결되기는 어렵다.

46.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는 자연 환경을 개발하려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결정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 글의 첫째 문단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은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되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할인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현재의 가치가 떨어지며 수치가 낮을수록 현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은 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이익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따지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소개한 할인율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의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환경 개발에 대해서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자연 환경 개발에 반대할 것이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가 자연 환경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하면 개발에 대해 반대할 것이고 그러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47-50] 현대소설 - 최일남, ‘호르는 북’

작품해제 : 이 작품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족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보여 준다. 할아버지(민 노인)와 아버지(민대찬)의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북’은 민 노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 주며, 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예술 정신과 전통 세계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민대찬은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실리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한다. 그리고 아들 성규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강요한다. 그러나 성규는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는 민대찬과 아들 성규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가운데, 성규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

세대를 넘어서는 화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 예술혼과 인간의 본원적인 삶의 추구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및 화합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작품으로, 제시된 부분은 주로 민 노인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손자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편안해 하거나 공연을 앞두고 설레며, 북을 치고 나서 자기 몫을 해냈다는 느긋함을 느끼는 민 노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성격과 행위의 궤리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민 노인의 북을 치는 행위를 통해 민 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⑤ 이 부분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8. 추론적 사고(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이 장면에서 ‘집’은 민 노인과 아들 내외(특히 ‘며느리’)와의 갈등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며느리’는 아들 성규의 학교에 가서 북을 친 시아버지(민 노인)의 행위를 마치 죄인 다루듯 하며 힐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노인은 ‘성규가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회적 체면을 깎았다는 것을 아시니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민 노인’은 ‘막걸리 집’에서 손자 또래의 신세대를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②~④ ‘민 노인’은 ‘춤판’에서 아이들과 어우러져 신명나게 북을 치며 유대감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춤판’에서 ‘구경꾼들’은 공연 내용에 호응하여 공연자들과 함께 전통 예술을 향유하고 있다.

49.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이번에도 내가 너들 체면 깎았냐’는 말에는, 손자의 학교에 가서 북을 친 자신을 비판하는 ‘며느리’에 맞서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히고자 하는 ‘민 노인’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에 대해 상대방인 며느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는 북을 통해 예술혼을 발휘하는 ‘민 노인’에 대한 ‘아이들’의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다. ② ㉡에는 자기를 주목하는 구경꾼들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려는 ‘민 노인’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③ ㉢에는 공연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에 빠진 ‘민 노인’의 상태가 나타나 있다. ④ ㉣에서 시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며느리’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

50.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에는 복을 칠 때 모시 두루마기라도 입어서 나름대로의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민 노인’의 생각이 암시되어 있으며, ㉡에는 자신의 복 가락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민 노인’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민 노인’의 예술에 관한 태도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예술가의 고난과 인내’를 떠올릴 수 있는 단서를 ㉠, ㉡에서는 찾을 수 없다. ㉢ ‘시대의 이상을 곳곳이 지켜야 한다’는 태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를 ㉠, ㉡에서는 찾을 수 없다. ㉣ ㉡를 통해 청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의 필요성을 연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와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예술’에 대한 단서를 ㉠, ㉡에서는 찾을 수 없다.